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4-06

여연브리프

YDI BRIEF

발행일 2014년 11월 13일

APEC정상회담을 통한 다자외교 강화 방안

- 목 차 -

要 旨

I. 한국외교 현황	1
II. APEC정상회담 개요	3
III. 한국의 다자외교 현황과 문제점	6
IV.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외교과제	9
V. 전망 및 제언	12
참고문헌	14

작성 : 김숙현 연구위원
(02) 2070-3316

《 要 旨 》

□ 외교정세의 변화

- 탈냉전이후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지역 간 또는 이해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다자간 협의체가 형성
- 강대국 중심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를 대표로 하는 중견국의 성장으로 다양화 추세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기성 강대국의 성장세가 둔화함으로써,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정치의 권력배분양상 변화
- 중견국은 기성 강대국과의 관계유지와 신흥 부상국과의 관계발전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및 국제범죄, 난민문제와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이라는 복합적인 공동과제에도 직면함.

□ 박근혜정부의 외교현황 (11월 이후)

-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참석(12-14, 미안마), G20 정상회의 참석(14-16) 등 다자외교를 위한 해외순방 예정
- 중국 시진핑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양자회담)이 다섯번째로 열릴 계획이며, 미국 오바마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도 예정

□ 다자외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다자간 회의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제언과 발신을 강조, 주요 이슈에 적극적 제언을 함으로써 중견국 내에서 선도적 역할 가능
-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의 동시추진, 곧 주요 강대국과의 양자외교 + 중견국과의 다자외교 추진

○ ‘신뢰외교’의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적 비전과 가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호소
-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타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 글로벌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

- 지금까지 한국외교는 북한 및 국가안보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문제,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과 같은 양자문제에 국한된 성향이 강했으나, 이제는 이를 넘어선 지역과 세계에서의 역할 수행에 적극 나서는 외교 필요
-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 도덕적 인도주의를 고려한 포용성 있는 외교 역량 강화

○ 중견국과의 연대 강화

- 연대 강화를 통해 중견국의 독립성 확보 및 역량 강화
- 호주, 멕시코 등 주요 중견국과의 양적-질적 협력 확대
- 특히, 정상 간의 개인적 교류 및 친분관계가 연대강화에 순기능 역할
- MIKTA 간사국으로서 중견국 외교의 리더십 발휘

○ 전략적 독립성 확보

- 미국과 중국의 정책들과의 차별성 및 독립성 확보
- 주변국 및 역내 중견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중요
- 전략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 요망

I. 한국외교 현황

□ 외교정세의 변화

- 탈냉전이후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지역 간 또는 이해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다자간 협의체가 형성
- 강대국 중심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를 대표로 하는 중견국의 성장으로 다양화 추세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기성 강대국의 성장세가 둔화함으로써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정치의 권력배분양상 변화
- 중견국은 기성 강대국과의 관계유지와 신흥 부상국과의 관계발전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및 국제범죄, 난민문제와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이라는 복합적인 공동의 과제에도 직면함.

□ 박근혜정부의 외교 현황(11월 이후) 및 평가

- 해외순방과 이어지는 다자외교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해외순방과 각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
 -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 평가에서 외교분야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이고 여성대통령으로서의 장점이 잘 부각되어 지지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침.
 -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자외교를 위한 해외순방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양자회담)은 다섯번째로 열릴 계획이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
 - 이후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참석(12-14, 미얀마), G20 정상회의의 참석(14-16) 등 예정

○ 평가

- 외교분야가 박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적 실효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임.
- 11월 3일 대정부질문(새누리당 이상일의원)이 공개한 외교·국방·통일부·국회 출입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부정적 평가 52.3%(58명), 긍정적 평가 22.5%(25명)
-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 ‘한중관계의 내실화 및 신뢰 증진’이 28.0%
-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미흡’이 76.3%,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대응태세 미흡’이 10.9% 등으로 남북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본 연구의 검토목적 및 의의

- 현 정부의 외교기조를 살펴보고 실천방안으로서 외교적 성과에 대한 점검
- 다자외교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 특히, 다자외교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외교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 제시

II. APEC정상회담 개요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란?1)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1989년 형성된 경제협력체
- 1988.10월 일본 통산성이 제안한 이후 환태평양 지역의 역내 경제협력 논의가 구체화되어 19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첫 각료회의 개최되었고 1993년 시애틀에서 첫번째 APEC 정상회의가 개최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 성장 및 발전이 주목적
-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APEC 활동의 지주로 ①무역 및 투자 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②무역 및 투자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③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채택하였는데, 편의상 전자 2개를 TILF로, 후자를 ECOTECH으로 약칭하면서 APEC의 양대 지주로 지칭
- 9.11 테러이후 반테러 등 안보관련 협력도 주요 활동분야로 현재 21개국이 회원국

□ APEC에서 한국의 역할

- 우리나라는 1989년 APEC 출범時, 12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로서 APEC에 참가
- 지역경제협력체로서,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과 새로운 시장 확대에 기여
- APEC 21개 회원국은 한국 총교역의 70.3%, 외국의 對한국 투자액의 63.7% (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05년에는 한국 부산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 개최

1) <http://www.apec.org/> 참조.

□ APEC 정상회의(APEC Summit)란?

- APEC 회원국 정상들이 93년부터 매년 11월 회원 각국을 돌면서 열고 있는 비공식 회의
-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교환
- 1993년 11월 미국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애틀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이후 매년 개최, 공식명칭은 APEC 경제지도자회의로 약칭은 영문 이니셜을 딴 AELM(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 회의 목적은 정상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배석자 없이 정상들만 참석, 회원국 대표 및 수행원들은 화면으로 관람)
 - 공식의제 및 공식적인 회의기록은 없으며, 회의결과는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
- 정상들은 해당 시기의 APEC 회원국 간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 강화, 세계차원의 정치·경제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
 - APEC의 고위관리회의,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역할
- APEC 참가자격은 주권국가(country)가 아니라 경제체(economy)로서, '국가'라는 명칭 사용이나 국기게양 불허
-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타이완과 홍콩은 각료급 인사가, 나머지 국가는 정상이 참가
- 제13차 정상회의는 이틀 동안(2005.11.18.~19)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개최, 공동 선언문 형식으로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을 강조한 부산선언 발표

□ 역대 APEC 정상회의

<표 1> 역대 APEC 정상회의 일시 및 장소

회차	일시	장소(주최국)
제1차 APEC 정상회의	1993.11.20	시애틀(미국)
제2차 APEC 정상회의	1994.11.15	보고르(인도네시아)
제3차 APEC 정상회의	1995.11.19	오사카(일본)
제4차 APEC 정상회의	1996.11.25	수빅(필리핀)
제5차 APEC 정상회의	1997.11.24-25	벤쿠버(캐나다)
제6차 APEC 정상회의	1998.11.17-18	쿠알라룸푸루(말레이시아)
제7차 APEC 정상회의	1999.9.12-13	오클랜드(뉴질랜드)
제8차 APEC 정상회의	2000.11.15-16	반다르 스리 베가완(브루나이)
제9차 APEC 정상회의	2001.10.20-21	상해(중국)
제10차 APEC 정상회의	2002.10.26-27	로스까보스(멕시코)
제11차 APEC 정상회의	2003.10.20-21	방콕(태국)
제12차 APEC 정상회의	2004.11.20-21	산티아고(칠레)
제13차 APEC 정상회의	2005.11.18-19	부산(한국)
제14차 APEC 정상회의	2006.11.18-19	하노이(베트남)
제15차 APEC 정상회의	2007.9.8-9	시드니(호주)
제16차 APEC 정상회의	2008.11.22-23	리마(페루)
제17차 APEC 정상회의	2009.11.14-15	싱가포르(싱가포르)
제18차 APEC 정상회의	2010.11.13-14	요코하마(일본)
제19차 APEC 정상회의	2011.11.12-13	호놀룰루(미국)
제20차 APEC 정상회의	2012.9.8-9	블라디보스톡(러시아)
제21차 APEC 정상회의	2013.10.7-8	발리(인도네시아)
제22차 APEC 정상회의	2014.11.10-11	북경(중국)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Ⅲ. 한국의 다자외교 현황과 문제점

1. 박근혜정부 외교정책기조와 전개

□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4대 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의 기조 아래, ‘국민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구현을 비전으로 지정
- 4대 목표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 (Peace)
 -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부흥 선도 (Prosperity)
 -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중견국 실현 (Prestige)
 - 국민권의 증진과 문화융성 구현 (Peace)

□ 외교적 성과

- 한미동맹 재확인
- 일본과의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 전달
 - 아베총리 및 일부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각성을 촉구
- 중국과의 우호협력 및 관계증진
 - 정상회담 및 다자외교를 통해 양국 간 이해관계 및 우호증진

2. 주요 회의를 통해 본 박근혜정부의 다자외교 현황

□ 2013 APEC 정상회의 주요 성과

-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주도
 - APEC의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6년까지 연장
 - 선진-개도국 간 입장을 모두 고려한 가교 역할

- 별도 선언문에서 APEC 환경상품 자유화 진전을 촉구하는 문안 합의에 선진-개도국 간 입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문안 도출에 기여
- 아태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APEC내 선진-개도국이 함께 '적정기술' 협력에 노력할 것을 제안
- 창조경제정책 확산과 공유 노력
- CEO Summit 기조연설을 통해 아태지역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 경제 정책을 소개²⁾

□ 2013 상트페테르부르크 G20정상회의(9.5-6) 주요 성과

○ 세계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핵심이슈로 논의

-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강화, 조세회피 방지
- 국제협력, 보호무역조치 동결 공약 연장이 주요 성과로 평가
- 안보이슈인 시리아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향후 G20이 글로벌 경제이슈 이외의 지역·안보 이슈도 논의 가능성 확대
- 한국은 고용세션에서 선도발언 등 글로벌 경제현안 해결 논의에 참여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공조, 보호주의 동결공약 연장 등 제반분야 합의 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³⁾

□ 2013년 서울사이버공간총회 및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개최

○ 서울사이버공간(스페이스)총회의 개최 및 성과 (10.17)

- IT 선도국가로서 총회를 개최하고 주도하는데 의의
- 국가 간 사이버 분쟁·범죄 등의 가이드라인 역할이 되는 '서울원칙' 채택

○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회의 개최 및 성과 (10.20-11.7)

- 세계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외교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의미
- 한국주도의 '사물인터넷(IoT)촉진', 'ICT애플리케이션 확산', '커넥트 2020' 등 3개 의제가 국제사회 공감을 얻음.

2) 이러한 평가는 외교부의 공식입장임.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 『2013 APEC 복원력 있는 아태 지역, 세계성장의 엔진』 외교부, 2014.1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3)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g20/results/index>

3. 한국의 다자외교의 한계와 문제점

□ 한국주도형 다자외교의 미흡

- 경제력 및 국력에 비해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회의 및 협의체가 없음.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게 종속적인 외교 (한국이 선도하는 이슈가 全無)

□ 강대국 및 주요국 중심의 양자외교에 치중

-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국익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외교에 많은 부분을 주력
-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걸맞는 다자외교 및 외교방법의 다양성 시도가 미비

□ 한반도 중심 이슈에 한정

-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문제,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
- 지역 전반, 그리고 세계적 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주도적 역할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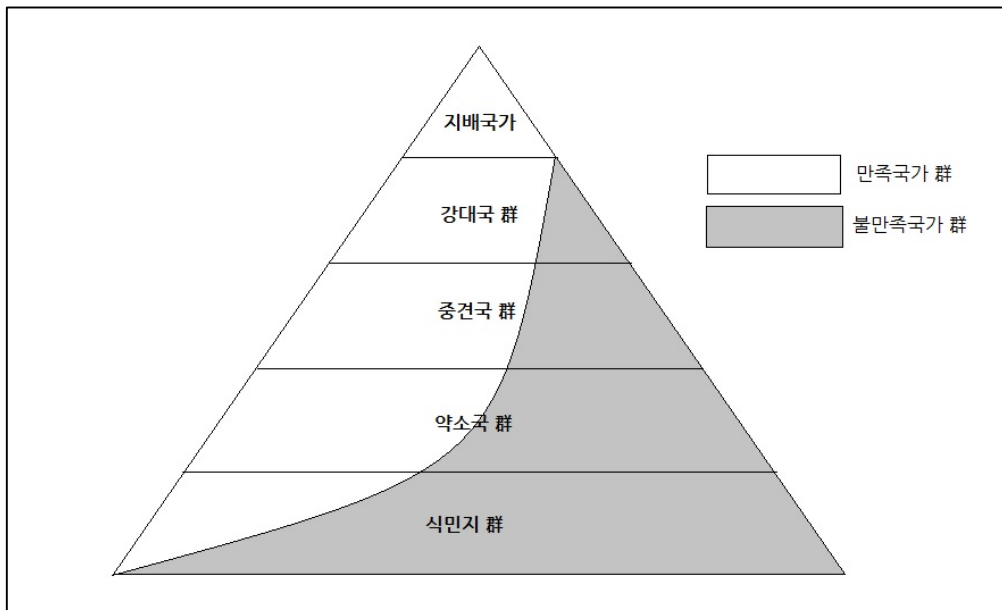
IV.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외교과제

1. 중견국(middle power)이란?

□ 중견국의 정의

- 중견국은 강대국처럼 국제체제에서 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를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군사투사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역차원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고 있거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지역 내 현상유지를 원하는 지배국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⁴⁾

[그림 1] 오르겐스키의 위계체제



출처: A.F.K.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p.369.

김우상, 『신한국책략 III』 세창출판사, 2012. p.188에서 재인용

- 대표적인 중견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폴란드, 터키 등

※ 중견국 리스트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특히 쿠버(David Cooper)는 호주와 캐나다를 대표적인 중견국으로 보는 데 대해 반대하는 까닭을 다수의 중견국 연구자들이 호주와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⁵⁾

4) 김우상, 『신한국책략III』 세창출판사, 2012, p.115.

5) David A. Cooper, "Challenging Contemporary Notions of Middle Power Influence: Implications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for Middle Power Theory," *Foreign Policy Analysis*, 7(2011), pp.319-320; 김우상, 앞의 책, p.115 참조.

□ 중견국의 조건과 요구되는 역할

○ 지정학적인 위치 + 경제 및 군사력

- 지역차원의 이해관계를 위해 동원 가능한 국력을 겸비
- 경제력 및 군사력 포함한 일정수준 이상의 국가능력을 겸비

○ 적극적 외교활동

- 최근에는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군사력보다는 '외교능력' 또는 '외교스타일' 강조
-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공통의 뜻을 같이 하는 국가와 함께 세계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원칙과 규범을 제안

2. 중견국 다자외교 강화 방안

□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과제

○ 독립성과 적극성을 있는 외교자세

- 의견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합하여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자회의에 적극적 동참
- 회의에서 발언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양국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성 확보

○ 세계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어젠다 개발

- 한국 고유의 외교비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국제적 규범 및 어젠다 개발
- 관련 회의를 준비, 다자회의의 촉진자 역할

○ 도덕적 인도주의 고려한 포용성

-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어젠다 주도

※ 인간 개개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기후변화, 개발협력, 자연재해, 핵확산금지, 테러리즘, 해적퇴치, 국제범죄, 인권 및 난민문제 등)

- 특히, 통일문제 관련 핵문제와 인권 및 난민문제 등은 한국이 주도해야 할 어젠다

○ 다자주의체제를 이끄는 리더십 필요

- 필요한 지역기구를 설립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매니저 역할 수행
- 역내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중재자 역할 수행

□ MIKTA(믹타: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의 적극적 행보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5개국 외교 장관회의의 비공식 협의체로 2012년 2월 시작

- 5개국은 세계적 위상이나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의지 및 역량 면에서 새롭게 부상한 중견국으로서 '창의적 동반관계'를 모토로 내걸고 있음.
- 지금까지 공동의제로 제안한 분야는 개발협력,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보건 안보,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등 難題

○ 한국은 9월부터 1년간 간사국으로 선정, 중견국 외교 및 한국의 외교적 리더십 발휘의 좋은 기회를 확보함.

V. 전망 및 제언

□ 전망: 2014 주요회의를 중심으로

○ 2014 APEC 정상회의 (베이징, 11.9~12)

- 베이징 APEC 회의의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구축’
- ‘지역 경제통합 진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촉진’ 등 경제중심의 논의
- 북핵문제 및 한·중·일 3국 간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 논의
- 시진핑-아베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의 입장정리가 중요

○ ASEAN+3 정상회의 (미얀마, 11.12~14)

- 에볼라,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등 국제안보현안 위기 해결을 위한 지역적 대응 강화 촉구 예상

○ G20 정상회의 (호주 브리즈번, 11.14~16)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 투자 및 인프라, 세계경제 위험관리, 고용 문제 등 논의 예정
-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왕세자와의 양자회담 예정
- ※ 건설인프라 투자진출 확대 등을 협의 예상

□ 제언

○ 각 회의의 이슈와 주제에 대한 한국의 제언과 발신 강조

- 주요 이슈에 적극적 제언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중견국으로 도약

○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의 동시추진

- 다자외교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양자외교 또한 중요
- 주요 강대국과의 양자외교 + 중견국과의 다자외교

○ '신뢰외교'의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적 비전과 가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호응 유도
- 한일관계의 악화가 타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

○ 글로벌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

- 지금까지 한국의 다자외교는 북한 및 국가안보가 주요 이슈
- 한반도 문제 및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과 같은 양자문제를 넘어선 지역과 세계에서 역할수행 필요
-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 도덕적 인도주의 고려한 포용성 있는 외교력 발휘

○ 중견국간 연대 강화

- 협의체에 포함된 연대 강화작업이 전제
- 연대 강화를 통해 중견국의 독립성 확보 및 역량 강화
- 호주 및 멕시코 등 주요 중견국과의 양적-질적 협력 확대
- 정상 간의 개인적 교류 및 친분관계가 연대강화에 순기능
- MKTA 간사국으로서의 중견국 외교의 리더십 발휘

○ 전략적 독립성 확보

- 미국과 중국의 정책들과의 차별성 및 독립성 확보
- 주변국 및 역내 중견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중요
- 전략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 요망

참고문헌

김우상 (2012). 신한국책략 III. 서울: 세창출판사.

김상배·이승주·배영자 (2013). 중견국의 공공외교. 서울: 사회평론.

윌리엄 패터슨 (2013).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과 한국”.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제4회 주한외국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회의록. (2013.9.26.). 서울.

호세 루이지 베르날 로드리게스 (2013). “멕시코의 중견국 외교전략과 한국”.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제5회 주한외국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회의록. (2013.10.31.). 서울.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브리프」의 전문을 www.yd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150-729)